

“주암댐 도수터널 신설공사 빨리 해달라”

여수산단·전남 동부권 안정적 용수 공급 위해

여수상의 등 경제단체, 기획재정부에 건의서

여수 상공회의소 등 여수지역 경제단체들이 여수 국가산업단지과 전남 동부권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주암댐 도수(導水)터널 신설 공사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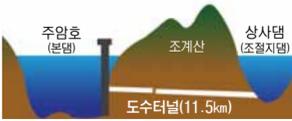
이번 건의에는 여수산단 공장협의회, 여수산단 건설업협회, 여수 중소기업협회, 여수 경영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암 본댐과 상사조절지 댐을 연결하는 터널인 주암댐 도수 터널(길이 11.5km)은 지난 1986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1990년에 통수를 했으나 이후 터널이 낡고 낙반 발생 등으로 수차례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등 신설공사가 절실한 상태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8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주관 토론회에서 시설 안정화 방안이 논의된 이후 도수터널 신설

■ 주암댐 도수터널 개념도



공사가 시행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으나 아직까지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98조원의 생산실적과 427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국내 최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국가산단 등에 용수공급이 중단된다면 석유화학단지의 특성상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이 돼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사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1년 1월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23분간의 정전 사고로 피해액만 707억원(추정치)에 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의 가동중지가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주암 다목적댐의 용수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책임으로 조속히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수 국가산단을 비롯한 여수·순천시 등 전남 동부지역(인구 70만명)은 매일 54만t의 물을 주암조절지 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정총리 “진도산 전복 최고” 정총리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5동 공터에 마련된 ‘진도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 진도산 전복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제2 세월호’ 되어서는 안돼”

철도노조, ‘담합·입찰비리’ 국토부에 안전대책 촉구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가 지난 31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비리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건설과정에서 담합, 부정보리, 부실시공으로 열차안전에 대한 심각한

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조그마한 결함과 문제로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어 부실시공과 불량자재사용은 열차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국토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

시로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혐의를 확인하는 뒷받침이었다”며 “심지어 철도시설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와 관련, 정부보증보증을 철도 시설공단의 예산을 동원해 집행하는 등 철도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철도시설공단에 부여하겠다는 정책 등을 발표하며

철도시설공단과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또 “사정이 이렇하더라도 국토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를 방치해 왔다”며 “호남고속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와 부실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부실 시공된 불량자재들을 전면 교체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희기자 glee@

前 청와대수석 2명 대기업·로펌 行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첫 공개

최순환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전 수석 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에 입사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지난 31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자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4건은 취업을 제한했다.

6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 청와대 수석과 전 금융위원회 간부 등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취업승인이

났다. 위원회는 작년 8월 퇴직한 최순환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작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최금락 전 홍보수석비서관은 법무법인에서 각각 대기업과 로펌에 입사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출신 A씨와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를 지낸 B씨는 각각 법무법인 출신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 청와대 수석 등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처리된다면 취업승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들어 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 비율은 15% 수준으로, 지난 2011~2013년 평균치 6.6%보다 훨씬 높아졌다. /연합뉴스

서울대, 진도로 ‘소셜농활’ 온다

‘세월호’ 생계 어려움 지원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진도 주민들을 위한 ‘소셜농활’을 떠난다.

공헌단은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3박4일 일정으로 진도군 임회면, 지산면에 머물면서 지역아동센터 교육나눔, 농촌일손돕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은 진도군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에 호응하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만들고 서울광장이나 서울대 학내 등에서 직접 특산품을 파는 ‘소셜 임팩트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공헌단이 사회적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는 소셜농활을 기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26일 소셜농활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모두 45명이 신청했다. 공헌단은 앞으로도 방학기간을 활용해 계속 소셜농활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공헌단장은 “서울대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대학운영 방향에 맞춰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도민소통실장·여성가족정책관 개방형 공모

서기관급… 13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도민소통실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을 공모한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서기관(4급)급으로 도민소통실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을 공모하기로 하고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류전형은 14일, 면접은 19일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는 22일 발표한다.

도민소통실장은 소통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 고충사항 해소, 지역 인사·국회

의원·정책관급 인사 등과 교류와 협력 추진 등의 업무를 한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 추진, 청소년 건전 육성계획 수립,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일을 총괄한다.

자격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전남도는 1일자로 실국공급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으며 조만간 본청과 공직을 포함한 후속인사를 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B/C필딩점
수평점
상무점
지멘스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501호)
학림빌딩5층 501호
동행(문선시장)
아바폴드점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공약기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점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